

학교·직장 동료와 '10분 독서' 함께해요

2018 책의 해 캠페인 다채
최소 1주일 1회 이상 읽기
독서동아리 80만원씩 지원
책 교환 '북토큰' 청소년 지급



순천시시는 시민들에게 책값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립도서관 제공>

“모든 구성원이 정해진 시간 동시에 책을 읽는다.”

책의 해인 올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독서 시간을 정해 함께 읽는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2018 책의 해 조직위원회는 범국민 캠페인 ‘하루 10분 함께 읽기’(함께 읽기)를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함께 읽기는 학교와 직장은 물론 공동체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곳에서 일과 중 10분 이상의 독서 시간을 정해 구성원들이 책을 읽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실제 학교의 일과 중 ‘아침독서’ 시간 시행 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독서량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아침독서’를 시행중인 학교(시행률 초등학교 81.7%, 중학교 52.9%, 고등학교 3.5%)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연평균 독서량은 46.9권이지만, 시행하지 않는 학교 학생들의 연간 독서량은 15.6권에 그쳐 ‘아침독서’의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함께 읽기 캠페인에는 평소 책을 읽지 않는 사람도 참여 계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캠페인에는 최소한의 권장 원칙이 있다. 학교나 직장 등에서 일과 시

간 중에 구성원 모두가 동시에 10분 이상의 독서 시간을 정하고 매일 시행한다.(적어도 1주일에 1회 이상은 시행해야 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꾸준히 함께 읽는 것이다) 또한 공부(교과서, 학습참고서)나 업무 관련서가 아닌 일반 도서를 읽자는 것이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려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및 대학), 직장, 군부대, 복지시설 등에서 10분 이상 구성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독서 활동을 2018 책의 해 홈페이지(www.book2018.org) 등록 신청서에 기입해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캠페인 참여처에는 ‘2018 책의 해 공동 조직위원장’ 명의의 캠페인 참여 증서를 수여하고 홈페이지에 등재한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캠페인에 참여한 곳을 기

간 중에 구성원 모두가 동시에 10분 이상의 독서 시간을 정하고 매일 시행한다.(적어도 1주일에 1회 이상은 시행해야 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꾸준히 함께 읽는 것이다) 또한 공부(교과서, 학습참고서)나 업무 관련서가 아닌 일반 도서를 읽자는 것이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려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및 대학), 직장, 군부대, 복지시설 등에서 10분 이상 구성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독서 활동을 2018 책의 해 홈페이지(www.book2018.org) 등록 신청서에 기입해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캠페인 참여처에는 ‘2018 책의 해 공동 조직위원장’ 명의의 캠페인 참여 증서를 수여하고 홈페이지에 등재한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캠페인에 참여한 곳을 기

에게 책값을 지원하는 사업을 5년째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립도서관 대출회원증만 있으면 동네 서점(2017년 기준 17곳) 어디에서나 책값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독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2018년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책 읽는 문화의 일상화·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200개 독서동아리를 선정해 80만원씩 지원한다. 회원 수 10인(군단위 이하 지역 6인) 이상으로 월 1회 이상 정기모임을 하는 독서동아리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독서동아리는 지원금을 도서 구입비(최대 40만원), 원자 관련 공연·전시 관라비, 문집 제작비 등으로 쓸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 청소년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전하고자 전국 초·중학생 6만 명에게 ‘북토큰’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참여 학교에서 선정했다. 북토큰은 청소년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서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한 도서교환권으로, 2013년부터 5년간 총 24만 3000 명의 학생이 지원받았다.

북토큰 1장당 전문가들이 선정한 ‘청소년 북토큰 도서’ 중 1권을 교환할 수 있다. 북토큰은 전국 지역 서점이나 ‘북토큰 온라인 주문 센터’(www.kfoba.or.kr/booktokens)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보물 되는 ‘이선제 묘지’ 가치 조명

24일 광주박물관 특강



15세기 집현전 학사를 지낸 이선제(1390~1453)는 광주가 낳은 대학자다. 조선대부터 광주교대까지의 8차선 도로를 ‘필문대로’라고 한다. 문화재청이 지난달 보물 지정 예고한 이선제 묘지(墓誌·망자의 행적을 적어 무덤에 묻은 돌이나 도판·사진)는 지난해 9월 일본 소장자가 기증했다. 이선제가 세상을 떠난 이후 후손들이 그의 생애를 적어 무덤에 묻은 기록물이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이선제 묘지 보물 지정 예고를 기념하는 특강을 개최한다.

묘지 환수에 힘을 보탠 양명준 전 부산시립박물관장이 ‘이선제 묘지 밀반출 방지에서부터 환수 및 기증과 보물 지정 예고까지’라는 주제로 밀반출과 환수 과정을 회고하고, 광주교육대학교 김덕진 교

수가 ‘필문 이선제와 호남 사람’을 주제로 이선제가 누구이고 그의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 말할 예정이다.

한편 박물관은 이번엔 보물로 지정 예고된 이선제 묘지와 더불어 지금까지 박물관이 기증 받은 문화재 중 묘지를 모아 특별전 ‘기증 묘지전’을 오는 9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62-570-705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한국화랑협회와 업무협약

(제)광주비엔날레가 한국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 한국화랑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좌)광주비엔날레는 지난 18일 김선정(오른쪽)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와 이화익 한국화랑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한국화랑협회 회의실에서 양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 미술계의 발전을 위

해 양 기관이 인적, 물적 자원 연계 등을 통한 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세계 시각 예술 분야의 국제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교류 및 협력하고 공동 홍보할 방침이다.

이화의 회장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서 한국 미술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

제63회 호남예술제 실용음악 입상자 명단

- | | | |
|--|--|--|
| <p><심사위원>
오영목 (엔트사운드컨텐트 대표)
배창희 (남부대 교수)</p> <p><보컬 고등부>
▲ 은상
1 박시우(빛고을고2)</p> <p><드럼 초등부 3,4학년>
▲ 동상
1 김담원(수원초4)</p> <p><드럼 중등부 1,2학년>
▲ 금상
1 지왕린(산정중1)
▲ 동상
2 전준휘(광주서석중2)</p> <p><드럼 중등부 3학년>
▲ 은상
2 강한울이(광주송광중3)
▲ 동상
1 손우현(전남중3)
3 심우현(산정중3)</p> <p><통기타 초등부 5,6학년>
▲ 동상
1 정하원(신창초5)</p> | <p><통기타 중등부 1,2학년>
▲ 금상
2 정하은(광주진흥중2)
▲ 동상
1 김현주(우산중2)
3 선원재(전남중2)</p> <p><통기타 중등부 3학년>
▲ 금상
1 이승훈(전남중3)</p> <p><통기타 고등부 1,2학년>
▲ 금상
1 김민서(문성고1)
▲ 동상
2 이경근(광주서석고2)</p> <p><클래식기타 초등부 3,4학년>
▲ 금상
4 임도현(광주송원초4)
▲ 은상
1 서규민(광주송원초4)
▲ 동상
2 고준혁(광주송원초4)
3 김지윤(광주송원초4)</p> <p><클래식기타 초등부 5,6학년>
▲ 금상
3 김지혜(광주송원초6)
9 김상훈(광주송원초5)▲</p> | <p>은상
7 김대영(광주송원초6)
8 강승진(광주송원초5)
▲ 동상
1 설다연(광주송원초6)
2 심승훈(광주송원초5)
4 김준형(광주송원초5)
11 윤정현(광주송원초5)</p> <p><재즈기타 중등부 3학년>
▲ 금상
1 김찬우(조선대학교부속중3)</p> <p><재즈기타 고등부 1,2학년>
▲ 금상
1 강범석(풍암고1)</p> <p><재즈피아노 고등부 3학년>
▲ 금상
2 이지민(2000년생)
3 이이삭(고려고3)
▲ 은상
4 박정민(동명고3)
▲ 동상
1 김이현(함평고3)</p> <p>※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 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p> |
|--|--|--|

‘꿈을 실은 독서열차’ 고교생 모집

광주교육청, 6월1일까지

꿈을 실은 독서열차가 올해도 파주로 떠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꿈을 실은 독서열차’는 광주시내 고등학생 1학년 65명을 선발해 무료로 진행한다.

특히 토론과 스피치, 특강, 견학, 독서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활판공방을 비롯해 인쇄소, 출판사를 견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6월 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MBC 홈페이지(www.kjmbc.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센터를 살펴보고, 심재명 대표로부터 영

화 이야기와 영화제작자라는 직업의 세계를 듣는 시간도 갖는다. 한양대 최승일 교수는 에르리아 토론 방식 등 토론의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 소개하고 ‘질문하는 심대, 대답하는 인문학’을 읽고 심층 토론도 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광주시교육청과 광주MBC 공동 기획으로 마련됐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6월 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MBC 홈페이지(www.kjmbc.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센터를 살펴보고, 심재명 대표로부터 영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갈 길’ 23일 간담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신태섭)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박대식)는 오는 23일 광주센터에서 ‘열린 혁신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민단체, 유관기관, 지역 언론, 미디어관련 사회적 기업, 미디어협동조합, 소규모미디어센터, 미디어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

체가 참석해 재단과 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제안·모색한다.

또한 신태섭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재단의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소개하며 광주센터의 세부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지역사회단체와의 참여 토론, 협업 아이디어 발굴,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예정이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